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잠비아의 씨앗, 제라 보건대학



김홍식 장로 / AFF USA 이사장

2022년 12월, 아프리카미래재단 미주법인에서는 한국 본부에서 추진한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여행 2022에 동참할 기회가 있었다. 남아공-에스와티니-잠비아-에티오피아로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미주법인에서 집중 후원하고 있는 잠비아의 제라보건대학을 방문하여 협력으로 건축한 교실 건물 3동과 강당의 준공식에 참석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정이었다. '제라'라는 말은 잠비아 말로 '씨앗'이란 뜻이었다. 허일봉, 전미령 선교사 부부께서 30년 이상 피와 땀으로 뿌리신 씨앗이 치소모(소망) 병원과 제라(씨앗) 보건대학으로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잠비아의 국기는 빨강(자유), 검정(국민), 굴색(풍부한 광물), 초록색(천연자원)을 나타내고, 한쪽에 있는 독수리는 자유 및 고난을 이겨내는 국민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한다.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 있는 제라보건대학은 간호사, 의료기계 기술자, 준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제라보건대학의 로고인 씨앗도 국기의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었다. 각 색깔의 상징처럼 젊은 세대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전인적으로 자신을 향상시키고 즐거움을 맛보아야 하는데, 여건이 쉽지 않은 것이 잠비아의 현실이다.

다음은 제라 보건대학 강의동과 강당 준공식에서 그들에게 한 격려사이다. "귀반 여러분,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미래재단 미주법인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구의 반대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도착하는 데 거의 이틀이 걸렸지만 잠비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생각에 흥분되어서 그런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지만 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모든 축복과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프리카미래재단 미주본부가 여러분을 도와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희에게 큰 축복입니다. 제라보건대학이 앞으로 더욱 번창하여 잠비아의 의료인들을 세우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자들에게 육체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교육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닫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이미 받았기에 그 좋은 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진 분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여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코모 베리! ('대단히 감사합니다'의 잠비아 말)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잠비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찰떡궁합 AFF 프로젝트를 이어주고자
나타난 큐피드, 아미재입니다.

성실함의 미덕을 갖춘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잠비아 치소모 아동 클리닉 사업]

치소모 병원은 2010년 설립된 24시간 진료 기관입니다.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며,
노인과 고아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그리고 세계를 위한 목표를 위해서
밤낮없이, 꾸준히 달리는 당신이라면..!

‘어디서 좋은 향 나는데요...?’
“내.취.향”

1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③

잠비아 치소모 아동 클리닉 사업

AFF

2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③

아프리카미재재단은 잠비아 치소모 아동 클리닉 사업을 통해 잠비아의 더 많은 아동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AFF

3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③

치소모 병원은 2010년 설립된 24시간 진료기관으로, 수도 루사카의 2만 5천평 터에 6개 병동과 입원실, 진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과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무료로 진료를 제공합니다.

AFF

4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③

특히 2021년의 경우, 1,518명의 환이에게 무료 말라리아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259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 물품과 긴급 식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AFF

5

시진 출차-환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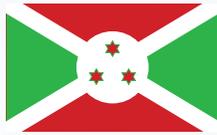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 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③

AFF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부룬디



소중한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과 찰떡궁합 AFF 사업을 이어주기 위해,
큐피드 아미재가 돌아왔습니다!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당신이라면?
삐빅-[부룬디 한센인 진료 협력 사업]과 운명입니다!

부룬디의 수도 부줌부라에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무제라는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요.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이 무제 지역에서
[부룬디 한센인 진료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역 한센인의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
더 나아가 건강한 자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당신이라면?
테스티나는 여기 있어요!

1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④

부룬디 한센인 진료 협력 사업

AFF

2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④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부룬디의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돌봄 및 교육, 집중케어 센터 건축 등 지역 한센인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AFF

3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④

또한 한센인 환자 관리, 추적 검사, 치료를 통한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 더 나아가 건강한 자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FF

사진 출처: OIS TV

4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④

AFF



2022 중남부 아프리카 비전 트립 리포트

아프리카미래재단 창립 15주년 2022 중남부 아프리카 비전트립이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남아공화국, 에스와티니, 잠비아, 에티오피아 등 4개국에서 의료인 17명을 포함해 31명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다. '주님과 함께 아프리카로!'를 주제로 한 이번 비전트립은 아프리카미래재단 한국본부와 미국본부, 한국기독교사회,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 샘병원, 고려대 닥터홀기념사업회, 영파선교회 등이 함께한 연합봉사단이었다.

12월 4일 주일 오후 한국에서 23명이 출발하고, 미국 6명과 남아공 현지의료진 2명이 함께하였다. 우리는 카타르항공을 이용하여 28시간에 걸쳐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여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월드컵 열기 가득한 도하공항에서 5시간을 체류하며 특별히 마련된 관람장에서 한국과 브라질의 16강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한 것은 보너스였다.

봉사단은 네 차례 의료봉사를 했는데, 먼저 한-남아공 국교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대사관의 요청으로 한인 의료봉사를 함께 했다. 미국과 한국, 남아공 현지 한인 의사 등 전문인력들이 함께했고, 주 남아공 박철주 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진에게 격려해 주었으며, 한인회가 만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날 저녁부터 중남부아프리카 한인선교대회가 요하네스버그 근교의 휴양시설에서 개최되었는데, 평촌새중앙교회의 지원으로 300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황덕영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큰 은혜를 받았다. 대회 기간에 고려대 병원, 삼성의료원, 전주 예수병원, 안양 샘병원과 군포 G샘병원에 소속한 최고의 의료진들이 이틀 동안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내과, 소아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함께해 선교사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는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영상의학과는 선교사들의 건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상담할 수 있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현지의 의료보험을 갖지 못해 안식년을 맞으면 한국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모처럼의 기회를 감사해 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한국에서 가장 멀고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보며 그들의 수고가 자랑스러웠고, 아프리카미래재단이 이들을 도울 수 있어 감사했다. AFF 미국본부에서는 선교사들의 선물비로 6천 달러를 후원하였다.

선교사대회가 마치는 9일(금) 아침에 우리 일행은 작은 버스로 6시간을 달려 에스와티니왕국으로 이동했다. 에스와티니에서의 첫 사역은 국립병원에서 열린 국제의학 학술대회였는데, 운전기사의 아프리카 타임으로 늦게 출발한 탓에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고 바로 의학학술대회에 참가해야 했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미국, 남아공화국과 에스와티니 의료진들이 참가하여 첨단 의술을 발표하였다. 이런 학술대회는 에스와티니에서는 거의 초유의 일이라 많은 관심과 큰 호응을 받았다.

에스와티니 현지인 의료봉사에는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치과의 경우 치아 관리가 되지 않아 아이들까지도 영구치가 망실되고 있어 의료진들이 안타까워했다. 에스와티니에는 양승훈 박사가 에스와티니기독교과대학 부총장으로 부임해 수고하고 있었고, 서울대





의대 교수로 은퇴를 한 박재형 선교사는 노후의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이곳에서 5년 동안 의대 설립과 의료인 양성을 위해 수고하고 있었다. 나라에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에스와티니 국민들은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저녁에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에스와티니 기독교대 학생들이 우리 일행을 위해 Africa Future Concert를 열었는데, AFF 뉴욕지부장 박형동 의사의 지휘로 멋진 연주가 되었다. 우리 일행은 모금을 해 방향을 맞아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다.

주일에는 현지인교회를 방문하여 두 시간에 걸친 예배를 함께 드렸다. 예배 시간에 흑인 특유의 노래와 춤이 곁들여진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다. 예배 후에는 영과선교회가 제공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오후에는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에스와티니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했고, 저녁에는 선교사들에게 만찬을 베풀었다.

12일(월) 아침 일찍 에스와티니에서 버스로 요하네스버그로 돌아와 다시 잠비아 루사카행 비행기에 올랐다. 세 나라를 이동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두 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도착한 루사카공항은 수도이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작은 지방도시 공항의 수준이었다. 루사카 공항에서 만난 해 저무는 잠비아의 석양이 일품이었다.

13일(화)에는 2007년 개원한 치소모병원을 돌아보았고, 2년 전 개교한 제라보건대학의 강의동과 강당동 준공식이 있었다. 허일봉, 진미령 선교사가 루사카에 와 35년 동안 헌신하고 있는데, 그 작은 크리닉이 치소모병원과 제라보건대학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규모

있는 대학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법인이 2년 전 10만 불을 지원해 강의동을 건축했고, 강당동은 2022년 영과선교회와 미국법인이 힘을 모아 건축했는데, 이번에 준공식이 함께 있었다. 제라보건대학은 최근 대학교육국 방문 심사에서 2년만에 놀랍게 발전하고 있어 꽤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한다.

교사 준공식과 함께 제라보건대학 간호학과 가관식, 학기말 시상식이 함께 있었다. 이날 행사는 3시간에 걸쳐 준공식, 간호학과 학생들의 캡 수여식, 그리고 학기말 시상식을 함께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잠비아 정부 보건부 훈련개발국장이 축사와 함께 준공식 테이프커팅을 하였는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14일(수)에 마지막 일정으로 루사카공항에서 에티오피아로 이동, 한국방문단과 이사장 김홍식 장로팀은 아디스아바바에 명성병원과 명성외과대학을 방문하였는데, 그 사역을 돌아보았다. 이사장 김홍식 장로님은 명성병원과 의과대학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고,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3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우리 일행은 일정상 루사카 공항에서 출발, 바로 귀국편에 올라 도하공항에서 환승을 포함해 다시 28시간의 긴 항공 여정을 마치고 15일 오전에 LAX에 무사히 도착했다. 지구의 반대편이라 긴 항공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두 주간은 의미있는 여행이었다. 130년 전 한국에 온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이 변화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 선교사들에 의해 날로 변화하는 아프리카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나삼진 사무총장)



잠비아 선교 소식

허일봉 • 전미령 선교사



잠비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4월 기도 편지를 드리고 그 사이에 오래 소식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느긋함이 생기는가 싶더니 이런 면에서도 긴장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에 제한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찌니라”(누가 17:10)이란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선교 현장에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소식을 전합니다.

1. 제라 국제 보건대학

1) 기쁜 일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강의동과 강당, 기도실, 이 세 곳 건물의 헌당예배를 12월 13일에 드렸습니다. 건축하도록 후원하셨던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한국 본부와 미주본부, 그리고 영파선교회와 임상외과학 여학생들 12명의 장학금을 후원하시는 로제타 홀 재단에서 특별 방문을 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간호과 학생들의 캠핑식과 우수 학생들 시상식도 같이 하였습니다. 보건부 훈련개발국 국장이 오셔서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잠비아의 한인회 회장을 비롯해 여러 한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온 기독교 의사들이 잠비아의 여러 대학의 기독교 의대생들을 초청하여 기독교 의사로서의 사명 등의 도전을 주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2) 한국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간호학과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학문적 교류와 양 대학의 발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의 삶이 궁극적이고 선교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간호학생들이 방문을 희망하기도 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한국목회간호선교협회에서는 2023년 간호학생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학금 모금을 해 주시고, 당진 고산감리교회에서는 교회 창립 70주년 예배 때 드려진 선교헌금과 폐비닐을 수거해 마련한 헌금을 간호학과 학생 7명을 위해 3년치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4) 새롭게 부임한 도로서 치캄바 간호학과장이, 의사로 일하다 돌

아가신 남편의 의학 서적을 도서관에 기증해 주어 감사합니다. 제라 보건대학을 위해 애쓰는 모습에 감동입니다.

5) 대학을 감독하는 기관인 High Education Authority(고등 교육청)에서 대학 평가 심사를 2차례 나와서 대학의 조직표, 인사, 재정 및 시설 등을 평가하더니, 2년도 채 안 된 신설대학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있음에 놀랐다는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물론 더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6) 코로나 시대에 지어진 건물로 강의동의 크기가 다른 곳보다 넓은 것이 특이했던지 간호협회와 국립의대에서 해마다 있는 국가고시 때 시험 장소로 강의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관계 기관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센터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2023년 부터는 국가고시 장소로 활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7) 작은 기도실은 개인 기도처 및 소모임 장소와 상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라 학생들이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며 기도의 용사들로 훈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 치소모 병원

올해는 의료협회에서 시스템이 바뀌었다며 병원 평가 심사를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와 물리 치료실이 없어도 되었지만, Class A 병원을 유지하려면 2개의 시설을 증설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년 안에 풀어야 할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실 것이라 믿고 기도합니다.

3. 카젬바 진료소와 유치원

카젬바 사역의 책임자인 엘리나 간호사가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고, 8차례의 약물치료 후 유방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 그루티기에서 치료비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미화 직원인 아이다 피리아주머니가 자궁경부암이 재발하여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두 명의 동역자들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4. 그 밖의 일들

1) 오랜 세월 동안 잠비아 사역을 함께 하시는, 미국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의 두 분 목사님 부부께서 잠비아를 방문하셔서 귀한 헌금도 전해주시고, 병원과 대학에서 설교 말씀도 해주시고, 치소모거리의 아이들 센터도 방문하셔서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해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귀한 교제를 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독가스를 뿜어대던 병원 옆 오일채생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환경청에서 더이상 라이선스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3) 한국에서 보낸 40피트 컨테이너가 곧 올 예정입니다. 탄자니아 항구를 통해 오면 육로로 루사카까지 아주 먼 장거리를 와야 하는데 무사히 도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번 컨테이너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작업 스케줄에는 다 숨은 뜻이 있음을 또 깨달았습니다. 운송비를 후원해 주신 독일의 'Giving Hands'와 모든 컨테이너 작업을 손수 해주신 '독수리 등지 재단'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연말 연시에 직원들에게 줄 선물도

많이 들어 있어 참 감사합니다.

4) 이 컨테이너에는 2개의 초음파 기계도 들어 있어 감사합니다. 치소모병원 개원부터 초음파기계를 계속적으로 기증해 주시며 추후 관리를 해 주시는 Medinet 114 윤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또한 (사)글로벌 생명 나눔에서 공책, 세정제, 방호복, 의류 등 많은 물품들을 기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12월 초에 거리의 아이들 센터의 남자 사감이셨던 줄루 아저씨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아이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속히 좋은 새 사감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또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센터의 집주인이 6개월 안으로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해 와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과 또 여러 기도할 제목들이 많으며 아른 목사님은 한달간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한해 동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한결 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힘차고 복된 2023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AFRICA FUTURE FOUNDATION NEWS

제라보건대, 강의동과 강당동 준공식 개최 간호학과 캐핑식과 학기말 시상식도 함께

아프리카미래재단 USA가 추진하던 잠비아 제라보건대학의 강의동과 강당동이 완공되어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13일 잠비아 루사카 제라보건대 현지에서 강의동과 강당, 기도실, 세 곳 건물의 헌당예배를 드리고 잠비아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로 봉헌한 것이다. 준공식은 간호학과 캐핑식과 기말시상식도 함께 있었는데, 아프리카미래재단 방문단과 30년 이상 현지에서 사역을 해 온 허일봉, 진미령 선교사와 제라보건대 관계자, 영파선교 회를 포함한 2022중남부아프리카 비전트립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이 강의동 건축은 아프리카미래재단의 한국 본부의 추천으로 미주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였으며, 강당동은 AFF USA와 영파선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건축을 지원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상은 대표, 김홍식 이사장이 축사를, 보건부 훈련개발국장이 축사를 하였으며,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와 임상 의학과 여학생들 12명의 장학금을 후원하는 로제타 홀 기념사업회에서도 함께했다.

AFF USA는 2022년에 10만 달러를 지원해 강의동을 건축하였고, 2023년에 영파선교회와 협력하여 각각 5천만 원(4만 달러)를 지원하여 강당동을 건축할 수 있었다.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두렘돈장학회 장학금 전달

두렘돈 장학회는 10월 22일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에서 창립 23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회장 김용태

집사의 사회로 남성수 목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시 126:5)'는 말씀을 전하고,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장학금을 수여했는데, 아프리카미래재단도 아프리카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천 달러를 전달받았다.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는 김용태 회장으로 부터 장학금을 전달받고 논의 결과 남아공화국 김재수 선교사가 사역하는 신학생 10명에게 1,000달러를,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남아공화국 천준혁 선교사의 두 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캠 코랄 갈라연주회 개최, AFF 위한 연주회도 준비중

오캠 코랄 갈라연주회가 지난 해 11월 6일 에나하임 CRC교회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연주회에는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연주회로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의 기도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등 합창 8곡과 중창, 뚜엣, 테너 솔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연주회는 김용태 단장의 인사 및 광고와 부에나콰교회 김성남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고, 이어 정성스럽게 준비한 리셉션이 함께 있었다. 이 연주회에는 300명 이상이 참가하여 팬데믹으로 2년 이상 갖지 못했던 음악회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연주회 중간에 아프리카미래재단 김홍식 이사장이 사역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오캠코랄은 2023년 4월 29일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위한 정기연주회를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위한 모금 연주회로 가질 예정이다, 우리 재단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친애하는 나 목사님과 닥터 김홍식께

(독자 편지)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말라위와 에티오피아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던 닥터 이정웅입니다. 두 분께서 꾸준히 아프리카 미래재단(Africa Future Foundation, USA)을 운영하시며, 신교에 떠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심장수술을 받지 않고 이곳에서 열심히 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병원에서 마취의사로서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몸을 35파운드나 줄여서 당뇨와 고혈압도 정상으로 유지하며 심장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환자들에게 간증하며 즐거운 생활을 한지도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금년도 mission fund를 보냅니다. 시간을 내서 두분을 찾아보도록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정웅 올림.

뉴욕 뉴저지 지부 재창립

아프리카미래재단 미주개최된 설립예배는 박형동 지부장의 사회로 1부 감사예배와 2부 축하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제1부 예배는 김억 사무총장의 기도에 이어 마크 최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고, 2부 순서는 아프리카미래재단 영상 시청에 이어 김홍식 미주법인 이사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김억 사무총장이 한국과 미국법인을 소개하고, 아틀란타지부장 이경호 지부장과 뉴저지 온누리교회 김진우 목사가 축사했다. 계속된 이날 순서에서는 미주법인 김홍식 이사장이 지부 이사장 마크최 목사를 지부 이사장으로, 박형동 닥터를 지부장을 위촉했고, 한국법인 박상은 대표가 브로드웨이 뮤지컬 'K-POP' 작곡가 헬렌 박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어 헬렌 박의 특송과 내빈 소개 등으로 이어졌다. 박형동 지부장은 닥터스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고 있기도 한데, 브로드웨이를 두고 있는 뉴욕지부는 앞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음악 사역이 중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미국 법인 대표단 워싱턴DC 방문 열린문장로교회, 5천달러 현금도

아프리카미래재단 한국과 미국법인 대표자들은 워싱턴DC 열린문

장로교회와 동부지역을 방문하였다. 양 법인의 대표단들은 10월 28일 열린문장로교회 당회와의 식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재단 사역을 소개하였고, 29일에는 박상은 대표가 교회의 토요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였다. 기도회 후에는 선교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아프리카 미래재단 사역을 김억 사무총장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나누는 기회가 있었다. 열린문장로교회 선교위원회에서는 이날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 미주법인에 5천 달러의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인 박상은 대표와 김억 사무총장, 미국법인 김홍식 이사장과 나삼진 사총장이 함께 했으며, 향후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새해 첫 한미이사회 개최

아틀란타 지부 피그마족 지원, 미국본부는 짐바브웨 사역 지원

새해를 맞아 1월 17일 중회의로 첫 한미이사회를 개최하고 미국 본부와 아틀란타지부의 사역방향을 결정했다. 아틀란타지부는 최관신 선교사가 사역하는 DR콩고의 피그미족을 대상으로 한 간호대학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틀란타지부는 지난 해 7월 지부 결성 후 내실을 다져왔는데, 이번에 체이스은행에 전용구좌를 개설하고 책임있는 사역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미국 본부와 지부의 역할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각 사역은 지부가 중심이 되어 책임있게 관리하되, 지부에서 모금되는 현금의 10% 수준을 행정비로 공여, 본부사역의 안정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본부는 짐바브웨 하라래지역 재활의료서비스 증진 사업에 대해 제안받고 1차로 기금에서 2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역은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 사역은 짐바브웨 강동원, 전진경 선교사가 추진하는 사역으로, 재활 장비 제공을 통한 원활한 치료,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아웃리치, 언어치료, 재활치료 서비스 등), 보호자의 장애아동 돌봄 능력을 향상 및 심리적 지원, 재활치료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활치료 수준 향상, 장애아동 인식개선 및 불평등 해소 등이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3월 12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 산호세 지부를 결성하기로 했다.

한국의 근대화 경험과 아프리카 선교 사역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사무총장)

아프리카는 18세기부터 영국과 프랑스를 정점으로 한 유럽 열강들의 침탈과 지배를 받다가 많은 나라가 1960년대에 독립하였다. 유럽의 지배를 받는 동안 나라마다 풍부한 자원의 수탈이 있었고, 반인륜적인 노예무역으로 건장한 흑인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팔려가야 했으며, 그러한 인력 송출은 아프리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아프리카 선교를 생각하면 '아프리카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슈바이처 박사(1875-1965)를 떠올리게 된다. 슈바이처 박사는 다재다능한 인물로 의사와 의료선교사로서만 아니라 오르간 연주자로, 바흐 연구자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한 신학자로도 남다른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가 의사로 가봉의 열악한 환경에서 크리닉을 운영 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다. 그의 서거 60주년이 가까워오지만 그가 세운 '슈바이처병원'은 문을 닫았고, 그의 의료선교의 유적이 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스스로의 수고로 병원을 운영하였고, 그러한 특별한 봉사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지만, 그는 그의 시대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의료사역 체계를 이루지는 못한 것이다.

이즈음에 우리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미국장로교회의 선교의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장로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북장로교회 선교부는 1941년 일제에 의한 선교사 추방 때까지 모두 300명의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한국에 파송하였고, 그 가운데는 첫 선교사 알렌을 비롯한 의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선교사들은 초기 내한 후 거의 처음부터 학교를 설립해 신교육을 시행했는데,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배재학당, 이화학당, 미국북장로교회에서 경신학교, 정신여학교(서울), 광성학교, 숭실학교(평양), 명신학교(제령) 등을 설립했고, 호주장로교회에서도 일신여학교(부산)를 설립했다. 이러한 신교육은 한국 근대교육의 첫걸음이 되었고, 선교사들은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놓았다.

한국의 의료선교의 역사도 교회나 교육의 역사만큼이나 깊다.

한국교회 시작에서 첫 30년 동안 설립된 병원은 광혜원, 시병원, 보고여관(이화의료원 전신)(서울), 일신병원, 나병원(부산), 기흥병원(평양), 동산병원(대구), 예수병원(전주), 구세병원(원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구한말 선교부의 도래와 함께 전국의 중요도시마다 선교지부가 설립되었고, 각 선교부는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교육과 의료를 선교의 효과적인 도구로 삼은 것이다.

놀라운 것은 각 선교지부마다 개척 전도와 교육사업, 의료사업이 팀사역으로 이루어졌고, 이로써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얻은 것이었다. 서울의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와 이화의료원, 부산의 일신여학교와 일신병원, 대구의 동산병원과 계명대학 등이 대표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선교사들의 교육과 의료사역이 미친 영향은 실로 큰 것이었다. 선교사들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바를 정확히 알았다.

한국의 근대화 경험들이 한국선교사들에 의해 지금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다.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과 함께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간호대학과 의과대학을 설립하며 효과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의과대학으로 DR콩고에 레버런드김대학교가 있고, 에티오피아의 명성병원과 명성의과대학은 한국전쟁 때 왕실 근위병을 파병했던 에티오피아에 대해 보은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명성병원은 영리병원과 자선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병원으로 자리잡았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보건과 의료 분야에 특화된 NGO이다. 아프리카에 특별히 긍휼의 마음을 가진 영웅적인 의료선교사가 평생 사역을 하고 그가 은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 의료보건 체계를 새롭게 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효과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130년 전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의 선교부가 한국에서 펼친 총체적인 선교사역에서 배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가 새로운 희망을 호흡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 (FEIN)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14-732-1484 (미국) +82) 31-342-9182 (한국)

✉ aff@africaff.org 🌐 www.africaffusa.org

🗣️ 📱 아프리카미래재단

📷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송금하실 때

- 은행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 121000358

송금하실 때 (아틀란타지부 전용)

- 은행 : Chase Bank

- 계좌번호 : 462352621

- Routing 번호 : 322271627

선한 청지기들 2022. 10. 1 - 12. 31 / 재정보고

헌금자 명단

Euiwon Chough, Andrew/SoYoung Kim, Eun S. Kim, Ester Lee, Michelle Y. Lim, Moses Park, Simon

Paek, Joyce Shin, Roger Smith, Young Song, Macheal Yang,

권태길 김방선 김준화 김홍식/김정미 나삼진/나미애 백형순 송원석/이원희 신영애 양해종

이승숙 장국현 정재훈 정진철 태성남 황길남 허지국/허영화

새벽이슬교회, OC샬롬교회, OChan인교회,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Livingstone Home Health, BWI Corp dba

* 혹시 이름이 누락된 경우 AFF 사무실 (714-732-148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전기이월	104,628.94
10월 현금	9,630.00
11월 현금	8,350.00
12월 현금 (비전트립 현금 포함)	25,890.00
분기 수입	43,870.00
총수입	148,498.94

지출

사업비 1 / 마다가스카르 AFF(이재환, MD)	3,000
남아공 AFF	3,000
남아공 김경환 선교사	2,000
남아공 김재수 선교사	2,000
우간다 김세현 선교사	2,000
중남부 아프리카 한인선교사대회	6,000
사업비2 / 명성의과대학 장학금(지정, 김홍식 장로)	30,000
남아공 김경환 선교사(지정)	1,860
행사비/동부지구 방문 경비	654.80
비전트립	9,957.36
사무비/발송비	104.11
뉴스 레터 편집/인쇄비	2,560.09
행정비	3,777.01
송금 수수료 외	432.25
분기 지출 소계	67,345.62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 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

